

退溪를 中心으로 한 嶺南歌壇**

趙 潤 濟*

• 目 次 •

- | | |
|---------------|--------------|
| I. 中世의 詩歌文學界 | IV. 退溪詩歌의 影響 |
| II. 退溪와 詩歌文學 | V. 嶺南歌壇의 形成 |
| III. 退溪詩歌의 淵脈 | |

I. 中世의 詩歌文學界

중세는 국문학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되겠다. 정신적으로는 바야흐로 민족의식이 각성되어 자립적인 것을 창조하여 보려 하고, 문학적으로는 자연미에 대한 인식이 깊어가, 문학은 한층 폭넓게 발전하여 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시가문학도 자연 전시대에 볼 수 없는 대발전을 한 듯하니, 그 대전제는 물론 훈민정음의 창제라는 것이 되겠지만, 이때에 오면 다수의 학자들이 우리의 詩歌를 이해하고 그에 참여하여 왔다.

첫째는 시조문학에 대한 일이나, 시조는 고려 때에 발생한 문학이라 하지만, 아직 그때는 그것이 일반화하지 못한 듯하더니, 鮮祖에 들어오면 차츰 學育間에 널리 애용되어 致任客은 물론이요, 산림에 파묻힌 處士들에게까지 이 문학이 침투하여 들어갔다. 그리하여, 이제는 학자들

* 전 성균관대 국문과 교수(작고)

** 청구대학, 『청구대 논문집』 제8호(1965) 게재논문

이 時調를 云謂하는 것이 하나의 상식이 되었고, 또 시조를 짓는 것이 확실히 학자들의 하나의 교양이 되었다. 國初 고려의 유신들의 회고의 시조를 부른 것이나, 또 孟思誠과 같은 致任客이 江湖四時歌를 읊조린 것은 다 그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때의 시조는 다분히 개성적이라는 것도 하나의 경향일 것이다. 즉, 시조는 단순한 字맞춤인 文字戲가 아니고, 인생에 대한 고민 혹은 자연미에 대한 자기적인 감흥을 시조를 통해 표현하여 보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면, 시조는 벌써 단순한 소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시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라 하겠는데, 이것은 시조의 큰 발전이요, 동시에 시조는 漢詩와 똑같이 학자의 교양 물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질이 갖추어진 것이다.

그리고, 다음 경기체가가 고려문학의 기형적인 존재라 하겠지마는 조선에 들어와서도 국초에는 아직 그 세력이 남았었고, 따라 이것을 애용하는 학우들도 있었다. 그러나, 元體가 기형적이었기 때문에 鮮朝에 들어와서는 그 형식이 많이 흐트러져, 여기에 新경기체가라도 일어날 듯도 하였지마는 별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그만 衰運에 부닥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경기체가 문학은 벌써 조선문학이 아니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니, 이 방면의 작가와 작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麗朝문학의 한 잔재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중세에도 조선에 들어온 이후의 시가문학계는 시조의 독무대라 하여도 可할 것이라 생각되나, 이 시대의 시조문학계는 근세의 학자의 歌壇總退陣과 비교하여 생각하여 보면, 확실히 학우층의 활동무대였고, 또 따라 시조문학발전의 대계기가 마련되었을 때라 하겠다.

이 때에 영남에서도 歌壇은 결코 무의식하든 안했다. 龔岩이 汾江小艇에서 어부가를 희롱한 것이라든지 퇴계가 陶山書堂에서 도산십이곡을 읊는 것은 다 그 가단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 퇴계를 중심으로 하여 영남에도 하나의 가단이 형성될 지도 모르겠다.

II. 退溪와 詩歌文學

퇴계의 시가작품으로는 오늘날 도산십이곡이 남아 있을 뿐이다. 이것은 前六曲과 後六曲으로 되어 前者는 『志』를, 後者는 『學』을 말하였는데, 모두 훌륭한 작품으로 道學者의 시가문학을 대표하는 것이라 하겠다. 선생은 이것을 지어 때때로 玩吟하여 自省之具로 삼았고, 또 兒輩들에 가르쳐 朝夕으로 부르게 하니, 그것은 兒輩들이 自歌而自舞蹈하면 가히 鄙吝을 蕩滌하고, 融通을 感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嘉靖44년(서기 1565)에 跋文을 붙여 一件을 깨끗이 平寫하여 두었다.¹⁾

그런데, 퇴계의 작품은 왜 이 도산십이곡만이 전하고, 다른 것은 후세에 전하지 못하였는가. 퇴계는 이 도산십이곡만을 쓰고 다른 작품을 쓰지 않았던가. 퇴계는 도산십이곡 跋文에,

願自以蹤跡頗乖 若此等閑事 或因以惹起鬧端 未可知也

라 한 것을 보면, 시가를 매우 경시하여 若此等閑事라 하였으니, 평소에 시가를 耽作하지 않은 것 같기도 생각된다. 그러나, 理學者에 있어서는 하필 한국시가만이 等閑事는 아닐 것이다. 문학자체가 역시 하나의 등한사가 될 지도 모르니, 이 말만을 가지고 퇴계는 도산십이곡 외에는 시가에 손을 대지 않았으리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도산십이곡 跋文에,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也綴以俚俗之語

라고 하고 있다. 즉, 그 理學者이었지마는 情性에 느낀 것이 지으면 모양 그를 시로써 발표하였다 하여, 오늘날 그의 문집에서 보듯이 많은

1) 퇴계의 手寫本 도산십이곡은 後日 그대로 판각되어 오늘날 도산서원에 전하고 退溪集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한시를 지었다. 그러나 今詩는 古詩와 달라 詠은 할 수 있지만은 唱할 수 없으니, 唱할 수 있게 하자면 부득이 국어로써 짓는 수 밖에 없다 하였다. 이 말은 국어의 시와 한문의 시는 그 근본가치에 있어 하등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 것이고, 따라 퇴계는 한시를 짓는 동시에 때로는 국어로써 한국의 시가를 짓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을 솔직히 고백하는 말이 되어, 퇴계의 시가작품은 결코 도산십이곡만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능히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퇴계는 도산십이곡을 짓기까지에는 많은 歌作修鍊이 있었다. 첫째 도산십이곡 跋文에,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 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人之口 而矜豪放蕩 兼以褻慢戲狎 尤非君子所宜尚惟近世 有李鼈六歌者 世所盛傳 猶爲彼善於此 亦惜乎 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也

라 한 것을 보면, 그는 한림별곡과 李鼈六歌에 대하여 깊은 연구가 있었고, 또 鼈岩野錄 跋文에,

頃歲有密陽朴浚者 名知衆音 凡係東方之樂 或雅或俗 靡不哀集 爲一部書 刊行于世 此詞與霜花店諸曲 混載其中

이라 한 것을 보면 朴浚의 歌集을²⁾ 읽었고, 또 그 가운데서 古歌인 霜花店과 기타를 보았던 것이 틀림없다. 뿐만 아니라, 퇴계는 同龔岩野錄 跋文에,

世所傳漁父詞 集古人漁父之詠 間綴以俗語 而爲之長言者 凡十二章 而作

2) 朴浚歌集은 오늘날 전하지 않아 그 내용을 잘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의문되는 일은 현전하는 악장가사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다. 現 악장가사에는 雙花店 등 古歌가 있을 뿐 아니라 어부가가 있는데, 이 어부가는 龔岩이 纂定하지 않은 원문 그대로이니 혹은 朴浚歌集이란 것은 現 악장가사 그것이 아닐까하는 것이다.

者名姓 無聞焉 往者安東府 有老妓 能唱此詞 叔父松齋先生 時召此妓 使歌之 以助嘉席之歎 滉時尚少 心竊嘉之 錄得其概 而猶限其未爲全調也 厥後存沒推遷 舊聲杳不可追 而身墮紅塵 益遠於江湖之樂 則思欲更聞此詞 以寓與而志也憂 在京師遊蓮亭 嘗遍問而歷訪之 雖老伶韻唱 莫有能鮮此詞者 以是知其好之者鮮矣

라 한데서 보듯이 少時에도 시가에는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어부사를 채집하기도 하고, 또 그 全篇을 얻고자 京師의 蓮亭에서 老伶韻唱을 歷訪까지 하였으니 시가의 연구에 그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을 가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퇴계는 젊었을 때부터 시가에 취미를 갖고 시가에 대하여 연구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況此 퇴계의 시대로 말하자면 학자가 시조를 짓는 것은 벌써 그들의 하나의 교양이었다. 그러나, 퇴계가 시가에 취미를 가지고 연구하였다는 것은 아무것도 기이한 일이 아닐 것이며, 학자인 그에게 그러한 것은 도리어 당연하다 하여도 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퇴계의 시가에 대한 연구는 여기에 든 翰林別曲 霜花店 漁父詞 李龜六歌에 국한된 것도 아닐 것이다. 벌써 그가 얻어 본 朴浚歌集에는 東方樂은 雅俗을 막론하고 衰集되지 않은 것이 없었다 하니, 거기 拾載되어 있는 시가는 모조리 보았을 것이고, 古歌에 대하여 그러니 퇴계 당시대의 今歌에 대하여는 더 말할 것 없이 그 대부분에 거의 한 번씩은 눈을 돌렸을 것도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 퇴계의 古來의 시가에 대한 연구가 그러하다면, 다음 퇴계의 歌作修鍊은 또한 어떠하였겠는가. 불행히 우리는 여기에 대하여 아무 기록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그의 道山십이곡 跋文에,

老人素不解音律 而猶知厭聞世俗之樂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

라고 한 말을 되짚어 해석하여 보면, 閑居養疾하는 사이에 情성에 느

긴 것이 있으면 매양 시로써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詠하는 데만 만족한 것이 아니라, 唱하여 보고자 하면 반드시 俚俗之語 즉, 국어로써 표현하였다 하니, 이 말로써 능히 퇴계는 국어로 상당수의 시가를 지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퇴계는 理학자이지마는, 또 상당히 수준 높은 문학자로서 그의 문집에는 2000수에 가까운 시가 수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를 지을 때에 可詠뿐이 아니라, 可歌할 시를 지어 볼 충동을 받기를 또한 얼마나 하였겠는가. 前記 퇴계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그 충동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을 것 같고, 그러한 충동을 느꼈을 때는 반드시 국어로써 作詩를 하였다 하니, 한국의 시가도 그의 한시의 수로 미루어 보아 상당수에 달하였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前記 인용문의 文理로 보아 결코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보면 퇴계의 歌作修鍊은 이미 대단하였음을 능히 알 수 있다. 즉, 퇴계는 古來의 모든 시가를 歷覽하였고, 또 스스로 많은 歌作을 하여 보았다. 그러니까, 오늘날 도산십이곡과 같은 대작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되고, 동시에 퇴계의 시가는 결코 도산십이곡만이 아니었으리라 하는 것도 단언이 되리라 믿는다.

그러면 다음에 그의 시조 몇 수를 인용하여 보면,

이런들 엇다흐며 저런들 엇다흐료
 草野愚生이 이러타 엇다흐료
 흐물며 泉石膏肓을 고태므슴흐료 (前曲 第一曲)
 × × ×
 當時에 녀던길홀 멧히를 버려두고
 어뒤가 든니다가 이제사 도라온고
 이제나 도라오나니 년되므슴마로리 (後曲 第四曲)

이와 같은 것이다. 형식이나 내용이나 그 어디 하나 흠을 잡을 수 없는 훌륭한 작품으로, 퇴계선생의 그 온아하고 恭儉한 기상이 저절로 풍겨 나와, 독자로 하여금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데가 있다. 이로 보아도

퇴계는 상당히 오래 歌作修鍊을 하여 왔고, 따라서 많은 작품을 창작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후세 사람은 그의 시가문학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학문이라 하면 성리학만이 있는 줄 알았고, 또 문학이라 하면 한문학만이 있는 줄 알아서 그만 퇴계의 시가문학을 돌아볼 줄 몰랐다. 그리하여 뒷날 퇴계문집을 편찬하면서 그 시가는 완전히 빼어 버렸다. 오늘날 도산십이곡이 전하는 것도 선생이 자필로 쓰고, 또 그 발문까지 붙여서 精書を 하여 두었기에 남은 것이지, 이것도 여타의 것과 마찬가지로 그냥 필기해 두었더라면 오늘날 남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 시가문학방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퇴계는 실로 위대하였다 보여진다. 그 심오한 성리학을 완전 이해하고, 또 그를 발전시키는 것도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닌데도 문학을 즐길 여유를 가졌으며, 또 그 위에 한국 시가에까지 조예를 쌓아, 우리 시가문학상에 도산십이곡과 같은 그러한 우수한 작품을 남겼다는 것은 실로 그 精力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을 뿐이 아니라. 더욱이 국학에 뜻을 두어 그 민족적인 의식이 뚜렷이 나타나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선생을 숭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후세 사람은 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해하고 숭배하였다 하지마는 그것은 퇴계의 일면을 이해하고 숭배하였지, 퇴계의 全面을 동시에 이해하지는 못하였던 것이다. 즉, 퇴계에게는 한국의 시가문학이 있었다는 것은 이때까지 잘 이해가 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퇴계의 이 방면의 작품은 후세에 거의 다 泯滅되고, 오늘에 겨우 도산십이곡만이 남아 전한다. 국문학을 위해 매우 애석한 일이고 여기에 또, 퇴계선생을 민족으로서 다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절실히 느껴진다.

Ⅲ. 退溪詩歌의 연맥

퇴계는 벌써 우리 시가문학의 대가가 되었다. 그러면 퇴계의 시가문학은 어떠한 계통을 가졌으며, 어디서 그 영향을 받아왔는가. 우리가 국문학을 考究하는 데 있어 가장 곤란을 느끼는 점은 그 계통문제이다. 국문학사가 엄연히 하나의 시대조류를 따라 발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문학자 하나하나가 어느 계통을 밟아왔는가 하는 데에 이르러서는 대단히 묘연하다. 소설작가가 그러하고, 시가작가가 그러하여 지금의 형편으로 보아서도 각 작가간에 거의 그 교섭을 발견할 수 없다 하는 것이 도리어 솔직한 대답이 될지도 모르겠으나, 그러한 의미에 있어 퇴계 시가문학도 그 계통을 따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에 속할 것 같다. 퇴계는 그의 학문에 있어서도, 어려서는 그의 숙부 松齋에게 배웠지만, 당시는 乙卯土禍의 뒤라 世人이 모두 독서를 경계하였으므로 이렇다 할 師友가 없이 초연히 독학으로 하여 나갔던 것이나, 그의 학문이 그러하니 歌文學엔들 무슨 師友가 있었을 리는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퇴계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古今의 시가를 널리 섭렵하여 스스로 자득하였다 하여 가할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그 시대에 그의 주위에는 시가를 즐기는 몇몇의 학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시가문학이 그를 자극하여 줄 수는 있는 일이고, 또 무언 중 그것이 퇴계시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도 모르니 이들 일련의 관계를 서로 엮어매야 계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분위기를 포착하여 퇴계시가의 연맥을 더듬어 볼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면 이하 몇 항에 나누어 이를 약술하여 보겠다.

1. 李鼈과 退溪

李鼈은 號는 藏六堂, 성종 때 사람이다. 朴彭年의 外孫으로 學業에 錮發當하고 일찍이 放言詩 1편이 있었으니, 그 시에 『我欲殺鳴鷄 恐有

舜之聖 雖欲不殺之 亦有跖之橫 風雨鳴不已 舜跖同一聽 善惡各孜孜不鳴 非鷄性』이라 하였다.³⁾ 이로 보아 일종의 不平客으로 세월을 보낸 듯하나, 그 때는 李鼈六歌라는 시가가 있어 한때 세상에 盛傳되었다. 퇴계는 이 李鼈六歌에 대하여,

其有玩世不恭之意 而少溫柔敦厚之實

이라 평하였지만, 퇴계는 이것을 모방하여 陶山六曲을 지었다 하니, 李鼈과 퇴계는 시가상 심상치 않은 인연이 있다 하여야 하겠다.

그러나 兩人的 관계는 이상 말한 그것 뿐이고, 그 이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겠다. 다만 李鼈六歌는 오늘에 전하지는 않지만, 그 때에 盛傳하였다는 점과 퇴계가 하필이면 이것을 들어 모방한 점을 생각하면, 그것은 시조로서 역시 우수한 작품이라 상상이 되고 퇴계는 어디인지 그 인물에 대하여 버리지 못할 점이 있다고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더욱이 李鼈은 鼈(六科, 吏曹正郎) 龜(文科, 判決事) 鼈(文科, 戶曹正郎) 등의 여러 형제가 있어 영남에서 赫赫하였으니, 시대의 관계가 있어 직접적인 面交는 없었다 하더라도 퇴계는 그의 가정을 잘 알고 있었지 않았는가 한다. 동시에 李鼈六歌는 퇴계에게 더 친밀감을 가지고 읽혀졌으리라는 것도 상상이 된다.

하여튼 李鼈과 퇴계와는 이별육가를 가지고 인연이 맺어졌었고, 또 도산십이곡을 이별육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던 것만은 사실이니, 이별시가문학은 곧 퇴계시가문학에 어떤 형식적으로나 영향을 주었을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2. 龔岩과 退溪

龔岩 李賢輔(1467~1555)는 퇴계의 同鄉 선배로서 둘 사이에 비록

3) 大同韻府群玉과 國朝人物志

사제의 誼는 없었다 하지마는, 농암이 퇴계를 사랑하고 퇴계가 농암을 존경하는 그 情誼는 보통의 사제관계 이상이었다. 그러나 농암은 퇴계와 같은 理학자도 아니고, 또 뛰어난 시가작가도 아니었다. 말하자면 一任官客이었으나, 그러나 그는 시가를 매우 좋아하여 晩年에 官을 辭하고, 향리에 돌아가 자연에 접근하여 들어가는 그 생활은 그대로 시적이었고, 더욱이 어부사를 얻어 그를 즐기는 모습은 완전한 하나의 江湖歌道이었다. 그러면 먼저 그의 작품으로부터 소개하여 보면,

歸去來 歸去來 말뿐이오 가리업시
 田園이 將蕪하니 아니가고 엇델고
 草堂에 淸風明月이 나명들명기드리니니 (効嘯歌)
 × × ×
 壘岩에 올라보니 老眼이 猶明이로다
 人事이 變흔돌 山川잇썌 사실가
 岩前에 某山某丘이 어제본듯 ㅎ예라 (壘岩歌)
 × × ×
 功名이 그지이실가 壽夭도 天命이라
 金屑씩 구븐허리에 八十逢春 기뻐헝오
 年年에 오듯나리 亦君恩이샷다 (生日歌)

첫째는 嘉靖壬寅 즉, 선생의 76세에 官을 辭하고 돌아오려 할 때 淸江에 배를 띄우고 飲餞하여 歸興이 도도하여 도연명의 歸去來辭에 効嘯하여 지은 것이고, 둘째는 고향에 돌아와서 농암에 올라 산천을 周覽하여 舊遊를 반겨서 지는 것이며, 셋째는 선생의 85세 생신날에 지은 것이다. 이것이 그의 시조이고, 또 이것이 그의 작품의 전부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의 시가생활을 전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진정한 시가 생활은 이 自作歌에 보다 도리어 그의 纂定한 어부사에서 볼 수 있으니, 다음에 그에 대하여 약간 소개하여 보겠다.

어부사는 원래 작자불명한 것으로 향간에 떠돌아 다니던 것 같아 퇴계의 壘岩野錄跋文에 의하면 松齋선생의 壽席에서 安東府의 老妓가 이

것을 불렀다 하고, 이것이 또 朴浚歌集에 수록되었다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농암의 손에 들어오기는 黃仲舉가 朴浚歌集에서 뽑아 농암에게 드린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어부사에는 長歌와 短歌의 두 종류가 있었다. 장가는 12장으로 되어 朴浚歌集에 수록되었었고, 단가는 10장으로 되어 향간에 流傳하던 것을 역시 黃仲舉가 採錄하여 농암에게 드린 것이라 한다.

그런데 농암은 이 어부사를 얻어 말의 不倫한 것이며 중첩된 것이며 또 傳寫時의 와전인 듯한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舊文本意에 인하여 增損을 加하여 長歌는 12장을 9장으로, 短歌는 10關을 5關로 纂定하였다. 그리하여 농암은 이것을 手寫하여 龔岩野錄이라 하고 스스로 서문을 썼으며 또 퇴계는 그에 발문을 썼었는데 농암은 그 서문에

右漁父歌兩篇 不知爲何人所作 余自退老田間 心閑無事 衰集古人觴詠間 可歌詩文若干首 教閱婢僕 時時聽而消遣 兒孫輩晚得此歌而來示 余觀其詞 語閑適 意味深遠 吟咏之餘 使人有脫略功名 飄飄遐舉 塵外之意 得此之後 盡棄其前所玩悅歌詞 而專意于此 手自騰冊 花朝月夕 把酒呼朋 使詠於汾江小艇之上 興味尤眞 亶亶忘倦

이라 말하였다. 즉 선생은 致仕이후 太平閑民으로 향리에 은거하여 古人的 시가를 많이 모아 그를 玩賞하다가 이 어부사를 얻은 후에는 오로지 여기에 뜻을 붙여 날로 玩吟하고 또 花朝月夕에는 술잔을 잡고 벗을 불러 汾江小艇에서 이 노래를 불러 즐겼다는데, 퇴계는 龔岩野錄跋文에서 농암의 그 어부사적 생활을 더 자세히 설명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惟我龔岩先生 年踰七年 卽投紱高屨 退閑於汾水之曲 屢召不起 等富貴於浮雲 寄雅懷於物外 常以小舟短棹 嘯傲於煙波之裡 徘徊於釣石之上 押鷗而忘機 觀魚而知樂 則其於江湖之樂 可謂得其眞矣 佐郎黃君仲舉於先生親且厚矣 嘗於朴浚書中 取此詞 又得短歌之漁父作者十闕 並以爲獻 先生得而玩之 善愜其素尚 而猶病其未免冗長也 於是刪改補撰 約十二爲九 約十

爲五 而付之侍兒 習而歌之 每遇佳寶好景 憑水檻而弄煙艇必使數兒 並喉而唱詠 聯袂而蹁躚 傍人望之 漂渺若神仙人焉 噫 先生之於此 既得其真樂 宜好其真聲豈若世俗之人 悅鄭衛而增淫 聞玉樹而蕩志者 比耶

라고 致仕閑客이 벼슬자리를 떠나 이제는 太平閑老가 되어 늙은이 장차 이르는 줄 모르고 자연에 숨어 들고, 유유자적하는 농암의 그 생활을 여기에서 가히 엿볼 수 있는 것 같으나, 실로 농암의 致仕後의 생활은 완전히 하나의 신선과 같은 생활이었다. 그의 行狀에서 致仕後의 이러한 생활상을 좀 더 소개하여 보면,

退閑之後 尤自放於溪山間 每遇輿到 輒縱遊忘返 其出必以遊山 小具自髓 或竹杖芒鞋 穿林陟巘 或藍輿兩奴 傍野巡溪 自由夫牧豎見之 不知其爲宰相也 其遇可人與一水一石 稍清陰處 必班荆而坐 得意欣然 飲酒不過三兩杯 淡笑麴麴 終日不倦 風神蕭洒 岸韻森逸 無一點富貴塵埃氣 間出篇章 立意清新 有非少年盛作所可及也 好遊僧舍 靈芝屏庵 月澗臨江 皆其所 而最後常寓於臨江 時復輕舟短棹 往來遊賞 令侍兒歌漁父詞 以奇興 飄然有遺世獨立意 時人莫不高仰之 過者必造門 候謁爲幸焉

이라하여 농암의 退閑後의 생활은 온전히 江湖간에 臥起하며, 마음껏 자연을 즐기고, 또 그에 도취하여 들어가는 듯하다.

농암의 이러한 致仕 귀향 후의 생활은 그대로 시적이어서 그로 하여금 시가를 즐기지 않을 수 없게 한 듯하다. 농암의 작품은 앞에 소개한 그것이고, 그 밖에는 오늘날 발견되지 않고 있지마는 그의 纂定한 어부가는 본래 不知何許人所作이라 하더라도, 長歌는 12를 10으로, 短歌는 10을 5로 纂定하였으니, 오늘 그의 문집에 수록되어 있는 어부가는 사실 그의 作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지금 그 중 단가 1수를 인용하여 보면,

구벼는 千尋綠水 도라보니 萬疊靑山
十丈紅塵이 매나 가ᄃᄂᆞᆫ

江湖에 月白하거든 더욱 無心하애라

이와 같은 강호가다. 이것을 비록 그의 작이 아니라 하고, 그가 改作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만큼이나 개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의 歌作하는 그 소양은 벌써 대단한 것이라 입증하지 않을 수 없고 동시에 여기에 하나의 강호가도는 서는 듯하다.

그런데 龔巖集에 수록된 愛日堂戲歎錄에는 龔岩母堂의 작품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노래 1수가 기재되어 있다. 즉

먹디도 痘홀샤 승정원 선반야
 노디도 痘홀샤 대명던 기술가
 가디도 痘홀샤 부모다히 길히야

이것이다. 이에 대하여 농암은 愛日堂戲歎錄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越明年春 又以同副承旨 受由來觀 慈氏聞余行期 以諺語作歌 教其婢兒曰
 待承旨之來 而歌之 歌曰……省略……盖慈氏早孤 養于外叔文節公家 知承
 旨貴顯 且記其當時內間常語 至今政院官員 朝夕供餉 稱爲宣飯是

라고. 이 사실은 우리가 영남가단을 논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생각된다. 즉 당시 영남에는 농암, 퇴계와 같은 학자간에 있어 시가문학이 유행되었을 뿐 아니라, 농암 母堂과 같은 부녀자층에서도 또 시가문학이 애용되었다는 이 사실은 그 당시 영남 일대에는 시가문학 특히 시조가 일반의 교양물로서 널리 보편화되고, 따라서 後調를 짓는 이가 결코 드문 일이 아니었으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주목을 끌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점은 다시 뒤에 논하기로 하고 그리고 농암의 母堂이 시조를 지었다는 것은 그것이 또 농암의 歌作 혹은 그 시가애호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지도 모르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둘 필요

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면 다음에 시가상 농암과 퇴계와의 관계를 一瞥하여 보면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퇴계는 농암에게서 수업한 바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퇴계를 농암의 제자라고는 할 수 없다 하더라도, 퇴계는 농암을 대단히 존경하여 심지어는 壟岩野錄에 그 발문을 써서 농암의 어부사적 생활과 江湖之樂을 극찬하고 있으며, 그 跋文末尾에는,

先生嘗手寫此本 不辱下示 且責以跋語 滉身效猿狗 盟寒沙鳥 何敢語江湖
之樂 而論漁釣之事乎 辭之至再而命之不置 不獲已 謹書所感於其尾 以寒
勒命之萬一

이라 하였다. 여기에 농암과 퇴계와의 시가적 교섭은 충분히 이루어진 듯하다. 즉 퇴계는 젊어서 대선배인 농암을 옆에서 뵈어서 그의 가작생활과 시가생활을 보았고, 그를 흠모하는 의미에서 어부사의 발문까지를 썼으니, 그들의 시가적 교섭은 이미 족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다만 그 시가에 있어 농암이 얼마만치나 퇴계에게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문제가 남을 것이나, 이것은 피차의 작품이 그렇게 많이 오늘에 남지 않아 詳論할 방법은 없고, 다만 농암의 강호가도는 충분히 퇴계의 시가에도 그 영향이 있었던 것만은 숨길 수 없을 것 같다.

3. 晦齋와 退溪

晦齋 李彥迪(1491~1553)이 시가문학과 관계가 있는지 어떤지는 잘 알 수 없다. 다만 靑丘永言과 海東歌謠에 그의 작이라고 한 다음과 같은 시조 1수가 전한다. 즉,

天履地載하니 萬物の 父母 | 로다
父生母育하니 이나의 天地로다
이 天地 저 天地즈음에 늙을 뉘를 모르리라

이것이다. 과연 晦齋의 작품인지 어떤지는 잘 알 수 없다. 따라서 이것으로써 시가상 회재와 퇴계와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일인 줄 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적 경향으로 보아 회재에겐들 이만한 시조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것도 무모한 일이니, 傳言을 잠시 그대로 두고 두 관계를 생각하여 보겠다.

晦齋와 퇴계와의 학문상 관계는 매우 두터운 듯 하고, 퇴계는 또 회재를 同鄉의 선배로서 그의 인격과 학문을 존경한 듯하여 회재의 行狀을 퇴계가 쓰고 있다. 그 行狀 中에 퇴계는,

滉之不肖 固嘗獲登龍門 而望芝宇矣 亦懵然莫覺 不能以是深叩 而有發焉
十數年來 病廢林居 若有窺規於塵○間 顧無所依歸 而考問然後 未嘗不慨然
想慕乎先生之爲人

이라고 말하였다. 이로 보아 퇴계는 晦齋에게 그리 가까이 접촉하지는 않는 듯하다. 따라서 회재가 시조를 지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직접 퇴계의 시가문학에 영향을 주었으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다만 회재가 시조를 지었다 믿고, 또 퇴계가 시가를 연구하며 가작할 때 영남에서도 퇴계 이외에도 회재와 같은 학자가 시조를 짓고 있었다는 그 사실만을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여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4. 愼齋와 退溪

愼齋 周世鵬(1495~1554)은 豊基 군수로 있을 때 安裕의 故地인 竹溪白雲洞에 朱子の 白鹿洞서원을 모방하여 소수서원을 건립한 것으로 벌써 유명하나, 그는 또 道東曲 六賢歌 儼然曲 太平曲 등 長歌 4수와 君子歌 學而歌 問律歌 春風歌 至善歌 孝悌歌 靜養吟 動察吟 五倫歌 등 短歌 14수라는 적지 않는 시가작품을 남겼다는 것에도 국문학사상 유명하다.

愼齋가 이러한 시가작품을 쓴 데는 농암이나 퇴계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 즉 愼齋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 나라에 최초로 백운동에 서원을 세우면서 文成公의 遺像을 봉안하였을 뿐이 아니라 學田과 圖院을 두어 後學의 修學에 편의를 도모하고, 또 竹溪志를 修纂하여서 晦翁의 학문을 表彰하고 晦軒의 所志를 闡發하였으며, 또 거기에 배우는 학우들이 스스로 風詠하고 계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작 시가를 그에 別錄하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신재의 시가는 자연미에 대한 감흥이라든가 혹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어떤 즉흥을 읊어낸 것은 아니다. 말하자면 어떤 목적의식에서 일부러 이루어진 도덕적인 교훈가라고도 할 수 있다. 끝에 든 五倫歌는 竹溪志가 아닌 武陵續集에 실린 것이지만 이 역시 신재가 海西에 안찰사로 갔을 때 그 민속이 質質한 것을 보고 그들에게 人倫을 밝혀 가르치기 위하여 지은 것으로 그도 또한 교훈가임을 면치 못하였다. 그의 작품 하나를 들어 보겠다.

빈하고 낮지마새 먼뎃뵈 즐거오니
내계웃 이시면 늙이야 아나마나
富貴를 浮雲²티보고 曲肱而枕³호

愼齋의 시가의 내용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 가치성에 대하여는 자연 사람의 비판을 받지 않을 수 없어, 그것이 竹溪志에 첨부되어 발표되자 黃俊良으로부터 호된 반박을 받았다.⁴⁾ 또 여기에 대하여 신재는 변명도 하였다.⁵⁾ 그러나 신재의 시가는 一言으로 말해 古성현의 격언을 翻出 나열한 데 지나지 못하며 아무래도 우리의 시가문학으로는 크게 인정받지는 못할 것이다. 오직 그 가치를 입증하자면 그것이 국어로 되어 있다는 것과 또 이런 것이나마 한국시가의 이름으로 學友間에 吟詠되었다는 것 짚일 것이다.

그러면 이 신재와 퇴계와의 시가상 교섭은 어떠하였던가. 퇴계의 上沈方伯書에 보면

4) 黃俊良의 與周景遊書

5) 周世鵬의 答黃俊良書

周侯之 始建書院也 俗頗疑怪 而周侯之志 益篤冒衆 笑排群謗 而辨此前古 所無之盛事

라 하여 신재를 지극히 推尊하여 있고, 또 書周景遊題金秀珍詩帖後와 周景遊清涼山錄跋을 써 있으니, 피차의 사이는 친근하였다 생각되나, 시가상에 있어 서로의 교섭이 어떻던가 하는 것은 알 바가 없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竹溪志와 武陵續集에 신재의 시가가 수록되어 있으니 그것을 퇴계가 못 보았을 리가 없고, 況此 竹溪志 소재의 신재의 시가에 대하여는 黃俊良 신재 사이의 激論이 있었으니, 퇴계는 그것을 듣지 않았을 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신재의 작품을 일일이 퇴계가 다 보고 있었다고 해야 될 것이니, 그것이 비록 작품으로서는 비판받을 점이 있다 하더라도 퇴계의 시가생활에는 역시 한 가지의 참고가 되었을지도 모를 것이다.

그런데 여기 黃俊良에 대하여 잠깐 소개해 둘 필요가 있을 듯하다. 黃俊良(1517~1564)은 호는 錦溪, 퇴계의 제자요, 농암의 孫婿가 되는 사람이다. 오늘날 그의 시가작품이라도는 남아 전하는 것이 없지만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농암에게 어부가를 구해 준 일도 있는 만큼 그도 역시 시가에 대하여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듯이 생각된다. 그리하여 상당한 자신을 가지고 신재의 시가에 대하여 논쟁을 건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는,

文貞疋履高陽之曲 必出於一時善謔之餘 而非可誦於後世者也 先生既爲之評 又翻出聖賢格言 作爲咏歌爲正 悠然有浴沂咏歸之志 而浩然有天理流行之妙 亦不可謂所造之深矣 第恐語雖翻古 而如未免涉於自爲 則亦不須并入於此志 妄意刪去竹溪之曲 而并與別錄及儼然等歌 姑舍之而後人之見取爾

이렇게 말하였다. 즉 신재의 죽계별곡은 문인의 일시적 善謔에 지나지 못하는 것이니 마땅히 竹溪志에서 刪出되어야 될 것이고, 또 신재 所作의 儼然等歌도 그 말이 비록 翻古한 것이라 하지마는 자작한 데 지나지

않으니, 이 역시 죽계지에 넣지 말고 버려 두었다가 사람의 見取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다. 매우 딱딱한 논평이라 하겠으나 여하튼 그도 시가에 대한 自己流의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듯이 생각된다.

따라서 黃俊良은 자기자신 歌作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마는 농암 퇴계 신재와 같은 歌作家들이 틈에 끼여서 시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시가를 즐기기도 한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黃俊良 역시 당시의 歌壇인물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 더 두고 보아야 하겠다.

IV. 退溪詩歌의 影響

퇴계는 영남의 학자만이 아니고 한국의 학자요 동양의 대학자다. 그의 학문은 朱子를 배웠다 하지마는 주자 이상 성리학을 발전시켰었고 또 멀리 일본에까지 큰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퇴계는 그의 학문에서 뿐이 아니라. 그의 덕행이 또한 높아 전국적으로 그의 인격은 숭배의 的이 되어 그를 『東方夫子』 즉 한국의 孔子라고 일컫게 되었다.

따라서 퇴계의 숭배는 그 극에 달하여, 四色黨爭이 그렇게 치열하여서 서로가 他를 비방하고 남의 옳은 것을 옳다 할 줄 모르던, 뒷 시대에 있어서도 어느 누구 하나 퇴계를 그르다고 욕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국에서 그러니 영남에서야 더 말할 것이 없다. 더욱이 영남에는 직접 그에게 수학한 제자가 각처에 편재하여 있고 직접 그에게 수학은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제자에게서라도 배운 이가 또한 대부분이니, 말하자면 영남은 완전히 퇴계학과 일색이라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퇴계가 영남에 끼친 영향이란 것은 우리가 여기서 嘖嘖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거나와 다만 여기에서는 그의 시가문학의 영향에 대하여 약간 고찰하여 보겠다.

퇴계의 시가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오늘날 남은 것은 도산십이곡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의 시조는 이미 一家를 이루었을 뿐이 아니라 퇴계 자신이 이를 항상 愛誦하였다. 퇴계가 시조를 즐긴 것은 물론 그의 사업이 아니고, 성리학을 연구하고 한시를 읊는 여가에 즐긴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도산십이곡과 같은 그만한 작품을 내려면 그의 시가문학 수련도 앞서서 말한 바와 같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니 그의 작품은 현재 남은 그것만이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 보다 더 많은 작품이 있었을 것은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다. 퇴계가 학문과 한시의 餘技라 할지라도 그렇게 시가문학을 애용하였다면 그것이 그의 제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친 것일까. 우선 그 제자들은 결코 그에 외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생의 제자들 사이에는 선생을 따라 시가문학을 즐긴 이조차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퇴계의 시가는 도산십이곡 외에는 오늘날 한 수도 전하지 못하였다. 後日에 退溪集이 편찬되었지만 거기에도 퇴계의 시가만은 수록되지 않았다. 이로 보면 퇴계제자들의 작품도 비록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이 대부분 후세에 遺傳하지 못하였으리라 생각된다. 따라서 퇴계 이후 가단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의 대한 퇴계의 영향이 어떠한가 하는 실로 杳然한 일이다. 그러나 다행히 여기 송암이 있어 그의 문집에 약간 首의 시가를 전하였다. 송암은 퇴계의 제자이니 이로 보아 퇴계 당시에 溪門에는 시가문학이 확실히 있어 움직이고 있었던 것만은 능히 알 수 있다. 그리고 또 퇴계의 제자의 제자인 善汚堂이 있어 역시 그의 문집에 몇 수의 시조를 전하였다. 그러면 퇴계 이후라 할지라도 퇴계의 시가문학은 아직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하에 퇴계 이후의 시가문학 작가 약간 名을 들어 그들의 작품을 소개함으로써 퇴계시가가 후세에 끼친 영향을 엿보고 또 나아가서는 그 때의 영남가단을 구상하여 보겠다.

1. 松岩의 詩歌

松岩(1531~1587)은 權好文의 號다. 퇴계의 문인으로 처음부터 學業에 뜻이 없고 평생 學究에 전념하니, 퇴계선생도 그에 대하여 儒者의 기상이 있다 하고, 또 權某는 瀟灑山林之風이 있다고 칭찬하였다. 그만큼 그는 순수한 山林학자로서 퇴계를 누구보다도 숭배하였고 또 퇴계는 그를 매우 사랑하여 주었던 것이나, 鷄峯은 일찍이 학자에게 말하기를 『老선생의 靜默 溫雅한 기상은 오직 이 사람이 닮았다.』고 까지 말하였다.⁶⁾

그런데 이 송암에게는 獨樂八曲과 閑居十八曲이 있어 그의 문집 송암집 부록에 전한다. 전자는 경기체가의 擬作이고 후자는 시조로 되었는데 먼저 그들을 다음에 소개하여 보면

太平聖代 田野逸民 (再唱) 唱耕雲麓 釣炯江이 이맛과 일이업다. 窮通이 在天하니 貧賤을 시름호라 玉堂金馬는 내의願이 아니로다 泉石이 壽域이오 草屋이 春臺라 於斯臥 於斯眼 俯仰宇宙 流觀品物호야 居居然 浩浩然 開襟獨酌 岸幘長嘯 景과 어다호니잇고 (第一曲)

入山恐不心 入林恐不密 寬閑之野 寂寬之濱에 卜局를 定호니 野服黃冠이 魚鳥外 버디업다 芳郊에 雨晴호고 萬樹에 花落後에 靑藜杖 뷔집고 十里溪頭에 閑往閑來 호는쁘든 曾點氏浴所風雩와 程明道 傍花髓柳도 이러던가 엇다턴고 暖日光風이 불써니 불거니 興滿前호니 悠然胸次 | 與天地萬物 上下同流 景과 엇다하니잇고 (第四曲)

이것은 獨樂曲의 第1·4曲이다. 松岩은 그 序에

黃墨之暇 會有嘉辰之興 可詠之事 發以特歌 調以爲曲 揮毫題次 擬爲業府 雖鳴鳴無節 聽而察之 則詞中有 意中有指 可使開者 感發而興嘆也 松月滿庭 春花撩人 佳朋適至 則酌罷芳樽共憑岩軒 高歌若干章 手之舞足之蹈 幽

6) 洪汝河撰 松岩行狀

人之樂 足矣

라 하여 시가의 그 가치성을 논하고 다시 그의 歌作동기를 말하여

古人云 歌多出於愛思 此亦發於余心之不平 而朱文公曰 詠歌其所志 以養性情 至哉斯言 心之不平 而有是歌 歌之暢志 而養其性 噫 松窓數般之曲 豈無少補於風朝月夕之 動蕩精神乎

라 하였다. 이것은 퇴계가 도산십이곡 서문에서,

閑居養疾之餘 凡有感於情性者 每發於詩 然今之詩 異於古之詩 可詠而不可歌也 如欲歌之 必綴以俚俗之語……欲使兒輩 朝夕習而歌之 憑几而聽之 亦令兒輩 自歌而自舜蹈之 庶幾可以 蕩滌鄙吝 感發融通

이라 한 것과 그 뜻을 같이 하는 말로써, 松岩의 성리학자적인 시가의 생활을 가히 여기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뿐만 아니라 이로써 또 송암은 그 퇴계의 제자적인 입장에 있어 퇴계의 시가문학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閑居十八曲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시조로 되어 있는데 그 중 몇 수를 인용하여 보면,

生平에 願하느니 다몬 忠孝뿐이로다
이두일 말면 禽獸이나 다라리아
밋음에 ㅎ고져하야 十載遑遑하노라

靑山이 碧溪臨하고 溪上에 炯村이라
草堂心事를 白鷗근들 제알라
竹窓靜 夜月明하디 一張琴이 잇느니라

달이 저물거늘 느외야 홀일업서
松關을 닫고 月下에 누어시니

世上에 뜻글맛음이 一毫末도 업다

漁磯에 비개거늘 綠苔로 독글사마
고기를 헤이고 낙글뺨을 어이흐리
纖月이 銀釣 | 되여 碧溪心에 즘것다

이와 같은 것이다. 앞의 獨樂曲과 마찬가지로 역시 학자의 시가였으니 여기에도 퇴계의 도산십이곡의 영향은 역력히 보이는 듯하다.

송암은 아직 年少하여서 同學 儕輩와 각각 그 뜻을 말할 때 다른 사람은 다들 일찍이 登科하여 출세하기를 원하였지마는, 자기는 百尺漣洞에 올라 八窓을 열어젖히고 几案에 의지하여 누워서 一點 塵埃를 쓰지 않겠다고 한 것인데,⁷⁾ 송암의 시가는 손쉽게 말하자면 송암의 그러한 생활을 읊은 것이라 할 것이다. 퇴계는 젊어서는 仕宦도 하였지마는 만년에는 陶山 깊이 숨어 학문에 전념하는 동시에 한국의 山林處士道를 확립하기도 하였던 것이나, 송암은 완전히 그의 處士道를 계승하였다고도 할 수 있어 그의 시가문학은 또한 處士문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송암은 同鄉의 長老인 농암과도 관계가 없을 수 없었을 것이다. 松岩集에는 龔岩長篇에 次韻한 시도 있거니와 그 시에,

三第勝曾世無並 至今孰不韻風節 吾能好奇仰高芬 欲尋遺躅溪鳴咽 武陸
千里隔音客 岩仙又奈幽明別

이라는 구절이 있는 것을 보더라도 농암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고 또 그러하면 농암의 강호가도는 자연 그에 전수되었음이 분명한 일이다.

이리하여 농암 퇴계 송암의 시가문학은 서로의 어떤 관계가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7) 同上

2. 善汚堂의 詩歌

善迂堂(1569~1636)은 李蒔의 號다. 농암의 從曾孫이요, 퇴계의 제자 艮齋의 子이다. 그리고 또 寒岡에게 배웠다. 그러니까, 善汚堂은 퇴계와는 직접적인 사제의 관계는 없다하지만 학문으로는 매우 깊은 관계가 있다. 더욱이 그의 行狀에 의하면 心經, 近思錄, 退陶先生集을 僭心玩究하였다 하니 완전한 퇴계학파의 사람이요, 동시에 퇴계를 師事한 영남의 학자다.

오늘날 전하는 그의 문집은 매우 빈약하다. 그러나, 그 문집에는 烏鷺歌 一章과 操舟候風歌 三章 도합 4수의 시조가 收載되어 있다. 이 시조는 널리 소개되어 있지 않은 듯하니, 그 전부를 여기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烏鷺歌

가마괴 디디논곶에 白鷺야 가디말아
희고 흰긴헤 거문찌 무칠세라
던실로 거문찌무티면 씨을썰히 업스리라

操舟候風歌

데가는 더사공아 비잡고 내말들어
順風 만난 후의 가더라 아니가라
於思臥 中流에 遇風波하면 업더딜가 호노라

브름날 아덕놀 그 엽다호고 드디마라
海波 茫茫호더 颶風이 던혀브니
아마도 구퇴여건너려하면 載胥及溺 엇디홀고

朔風이 되오브러 大海를 흔들티니
一葉扁舟로 같길히 아득하다
두어라 이비한번기운휘면 브틸곶이 업스리라

이 노래는 光海昏朝에 諸子가 進取에 급한 것을 보고 그를 경계하여 읊은 것이라 한다. 시조의 작품으로서는 송암의 시조에도 비할 만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이러한 졸작이지마는 그에게 시조가 있었다는 그 사실은 퇴계 이후 아직도 그 학파의 학자 간에는 시조를 짓는 유풍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어 우리의 주목을 끈다.

더욱이 善汚堂은 농암의 從曾孫이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는 또한 하나의 家風으로서 祖先의 시가문학을 계승하였으리라고도 생각된다. 그의 시조는 반드시 그의 從曾祖인 농암에게서 계통을 끊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암이 특히 시가문학을 즐겼다는 그 사실만이라도 확실히 그 자손에 프라이드를 주어 그것이 또 곧 그로 하여금 시조를 지어보겠다는 의욕을 주었을 것은 거의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善迂堂은 퇴계의 시가문학에서 영향을 받고 또 다시 그 從曾祖인 농암에게서도 어떤 영향을 받았으리라 생각하여야 될 듯하다.

3. 蘆溪의 詩歌

蘆溪 朴仁老(1561~1642)는 이미 시가문학자로 유명하다. 그러나, 蘆溪의 시가가 퇴계의 시가와 어떠한 교섭이 있었는지는 잘 알 수 없다. 노계는 영천 출신이니, 지리적 관계로 보아 도산과 멀지 않는 곳에 살았고, 또 寒岡을 泗上에서 뵈었으며 계통으로 보면 그도 역시 퇴계학에 영향을 입은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는 원래 武人으로 임란 때 赫赫한 공을 세웠으나 亂이 끝나고는 田野에 묻혀 다시 진취에 뜻이 없었다. 그러다가 홀연히 깨닫기를 男兒의 사업은 문장이 至大한데 내 이제 늙었다 하여 어찌 이대로 있을 수 있겠느냐 하고, 鄒魯諸書와 紫陽附註를 갖다 놓고 潛心證讀하여 寢食을 廢하기도 하고, 혹은 中夜에 千古의 성현의 기상을 묵상하기도 하였다.⁸⁾ 그리하여 旅軒은 그와 수일간 담론하고는 無何翁은 老且病이나

8) 蘆溪行狀

능히 發憤忘食하고 大人의 道에 뜻이 있으니, 마땅히 東方을 떨칠 未有한 人豪가 될 것이라고 嗟嘆하였다.⁹⁾ 그러나 노계를 理학자라고는 할 수 없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문학에 속하는 사람이고 또 우리 국문학계의 稀有한 시가문학자다.

오늘날 그의 문집에는 太平詞 莎堤曲 陋巷詞 船上嘆 獨樂堂 嶺南歌 蘆溪歌 등 7수의 가사 외에 60수라는 다수의 시조가 수록되어 있다. 이하에 그의 시조 몇 수만을 인용하여 보겠다.

아비는 나으시고 어머니는 치옵시니
 昊天罔極이라 갑홀길이 어려우니
 大舜의 終身誠孝도 못다한가 흐노라
 (五倫歌 중 父子有親)

草屋 두세間을 岩穴에 부쳐두고
 松竹 두뿔치 病目에 익어시니
 이中에 春去秋來를 아므젠줄 모르로다
 (精舍)

낙대를 빗기쥐고 釣月灘 바라노려
 불근역곡 헤혀니고 들알이 안즈시니
 아모려 桐江興味山들 불을주리 이시라
 (釣月灘)

어화 아히들아 후리치고 가자스라
 田園이 뷘엇거니 엇지아니 가로소냐
 道川上 明月淸風이 날기드리기 오리니다
 (蘆洲幽居)

노계의 시조는 이런 것이다. 퇴계의 시조와 비교하면 그를 도학자의 시조라한다면 이것은 문학자의 시조로서 퇴계의 歌風과는 매우 다르다.

9) 同上

그러면 노계의 이 시조는 어디서 배웠을 것인가. 이것은 실로 어려운 문제로 누구도 여기에는 답하기 곤란할 것이다. 그러나 노계의 시조는 그 양에 있어서도 많거니와 또 그 作風에 있어 매우 원숙한 솜씨를 보이고 있어 어디선지 계통이 있는 것 같고, 계통은 없다 하더라도 시가문학의 흐뭇한 분위기 속이 아니면 그러한 作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니, 퇴계이후 영남에서는 송암 善汚堂 이외에도 학자층에 또다른 시가작가가 있어 퇴계의 시가문학의 전통은 사실상 살아 있지 않았는가 한다. 만약 그렇지 않고서는 노계와 같은 작가가 나온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니, 이 점은 이후 더 깊은 史料의 발굴로 차츰 闡明이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V. 嶺南歌壇의 形成

이상 퇴계의 시가문학에서 문제를 제기하여 퇴계시가의 연맥을 찾아 보고 또 퇴계 이후에 대한 퇴계시가의 영향을 생각하여 보았다. 자료의 결핍과 문헌의 빈약으로 별로 뚜렷한 체계는 서지 않은 듯하다. 그러나 어딘지 모르게 그 당시의 퇴계를 중심으로 하여 영남에 어떤 가단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었던 듯이 생각되니 그것은 대체로 무엇인가. 퇴계 선생의 존재가 원체 높고 그 분이 시가문학을 즐겨 도산십이곡이라는 작품을 지으니, 퇴계송배로 인해 그러한 분위기가 釀成되었는가 하면 그것도 그럴지는 몰라도, 퇴계 이전에 이미 농암 같은 분이 시가문학을 즐겼고 심지어는 농암의 母堂까지 시조를 지었던 것을 보면 그러한 분위기는 퇴계에게 비롯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다. 농암 母堂이 시조를 지을 정도니까 아마도 그 당시에서 영남에 있어서도 시대적인 조류에 의해서 시조를 즐기고 시조를 짓는 한 풍조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농암집에 보면 生日歌의 서문에

七月晦日 是翁初度之辰 兒孫輩 每於此日 設酌以慰翁 辛亥之秋 別設盛筵
 鄉中父老 四隣邑宰 俱會大張供具 秋起酬酌 終至醉舞 各自唱歌 翁亦和答
 此其所作也

라 하였는데 여기에 각자 唱歌 翁亦和答이란 말을 거기 모인 이가 각자 노래를 지어 부르니 농암도 이 生日歌로써 화답하였다고 해석하면, 그 각자의 唱歌한 그것은 역시 생일가와 같은 시조가 아니었던가. 그렇다고 한다면 시조는 지극히 평범한, 즉 누구도 부를 수 있는 학자들의 교양문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그 당시 영남문집에는 시가를 수록한 것이 거의 없다. 먼저도 말한 바와 같이 퇴계집에도 도산십이곡은 수록되지 않았고, 송암집에 그의 시가가 수록되었다 하여도 그것은 말미에 부록으로 붙였을 뿐이다. 이로 보면 후세 사람은 한국의 시가를 그 당시 사람들과 같이 숭상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록 숭상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단순히 학자들의 하나의 餘技로 생각되었지 참된 문학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았는지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시가문학이 학계에서 유행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傳不傳은 不顧하고 가단은 형성할 수 있다 하여야 하겠는데, 우리는 여기에 후세의 가사문학을 겸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하다. 가사문학은 다른 데도 많이 유행하였지만은 특히 영남의 閨中에서는 도도히 世風을 이루어 유행하였다. 그러나 그렇게 유행하였지만은 문헌에서는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발견되지 못하고, 또 어느 문집에도 그 작품이 수록되는 일이 거의 없다. 이로 미루어 보면 中世代에 있어 가단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로 아니었던가 한다. 즉 후세의 가사와 같이 그 때에는 시가문학이 매우 매우 유행하여 한 가단을 이루었지만은 문헌에서는 그를 분명히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중세시대에 영남에서는 퇴계를 중심으로 하여 한 가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해 온 여러 가지 사실로 미루어 학자 간에 가사를 숭상하고 서로가 시가를 즐겨 짓는 분위기는 충분히 형성되어 있었으리라 하는 것 짚은 단언해 두어도 좋을 듯하다.